

열흘 남은 수능... “9월 모평 등 복습하고 생체리듬 맞추는 것”

킬러문항 빠진 첫 수능으로
중고난도 문제로 변별력 확보
고1~2학년 핵심 개념 재점검
실전처럼 시간 내 문제 풀고
답안 마킹 훈련까지 연습 필요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둔 2023년 11월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교내에 설치된 '수능 고득점 기원 응원나무'에 수능 대박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오는 16일 실시하는 2024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수능)이 6일이면 딱 10일 남는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이 시기 새로운 내용보다 모의평가나 EBS, 오답노트로 복습하고 실제 시험 시간 따라 생체리듬을 맞추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새로운 것보다 '오답' 위주 복습...모평·EBS로 마무리

올해 수능을 10여 일 앞두고 5일 입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보다 앞서 공부한 것들을 위주로 최종 점검하고 마무리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진 첫 수능으로, 수능 유형을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를 활용해 점검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수능

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로 출제될 전망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9월 모평 출제경향이 유지된다면 이번 수능에서는 중고난도 문항을 연달아 출제하는 식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고난도 문제 풀이에서 핵심은 고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만큼, 교육과정에서 핵심개념을 재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처럼 난이도가 가늠이 어려운 수능일수록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무작정 문제량을 늘려서 해결하

려고 해선 안 된다"라며 "오답 정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중요 개념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하라"고 강조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도 "수능 마무리 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학습법 중 하나는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이라며 "중요 부분이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까지는 들추지 말고 익숙한 문제를 중심으로 점검하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EBS 교재의 연계 체감도 상승을 예고한 만큼,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EBS 교재) 수능 연계율 50%이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보았듯이 연계 체감도는 더 높았다"라며 "(9월 모평이) 연계 교재 지문이나 문항을 가급적 소극적으로 변형해서 출제됐으며, 그런 경향은 실제 수능에서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컨디션 관리... "실제 시험 시간 맞춰 하루 보낼 것"

수능은 오전 8시40분 시작해 오후 5시45분 끝나는 시험으로 긴 시간 집중

력이 필요하다. 생체리듬을 수능시험 당일에도 맞춰 조정하고, 실제 시험 시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답안 마킹 훈련까지 꼼꼼히 하면 좋다.

메가스터디는 "이제부터는 실전처럼 시간 내 문제를 푸는 연습을 되도록 많이 해야 한다"라며 "실제 수능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고,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일정 시간 내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과감히 건너뛰는 습관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답안지 마킹까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연습해 두는 게 좋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거나 무리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 이만기 소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했던 학생이라면 서서히 오전에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둬야 한다"라며 "수능 전 가장 좋은 컨디션 관리 전략에 대해 수험생들은 잠을 깊이 자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잠도 부족하지 않게 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행복한 서울시 위해 ‘도시안전’ 투자 필요”

서울시, 향후 5년간 투자 분야 질문
응답자 23.8% “도시안전” 답해
이어 사회복지·도시계획 등 꼽아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SEOUL MY SOUL(서울 마이 소울)'을 구현하려면 '도시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UL MY SOUL은 시가 올 8월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로,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부터 21일까지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서울 마이 소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어느 분야에 중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23.8%가 '도시안전'이라고 답했다.

염모 씨는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졌다. 내가 사는 도시가 안전

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며 "앞으로 도시안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해달라는 시민 요구가 많았다.

이모 씨는 "최근에 칼부림 사건들이 전국 여기저기에서 발생해서 그런지 치안, 안전 문제가 가장 신경쓰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 내 범죄 다발 구역, 인적이 드문 지역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를 꼭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모 씨는 "무동기 범죄로 도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도시의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환경"이라며 "폐가옥, 폐건물 등의 슬럼가 형성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깨끗하고 밝은 도시 조성이 무동기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모 씨는 "범죄에 관한 걱정이 가장

크다"며 "단기적인 경찰력 증가뿐만 아니라 우범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도시 정비에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많은 시민이 첫 번째로 도시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간 중 여러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였던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시안전에 이어 사회복지(22.5%), 도시계획·주택정비(14.6%), 도로교통(12.5%), 문화관광(8.7%), 공원환경(8%), 산업경제(7.2%) 분야가 서울 마이 소울 구현을 위한 중점 투자 분야로 꼽혔다.

응답자들은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려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 복지를 통해 빈곤 인구를 줄이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가정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정 기자 hik1@

경기도 베이비부머 71% “지속 근로 의향”

일자리 취업 지원 절실

경기도 베이비부머세대 10명 중 7명은 지속적인 근로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경기도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도내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71.7%(717명)이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수입 있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취업 지원'이 40.7%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필요 정책을 보면 학습활동 지

원에서는 '취업,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30.1%), 취·창업 지원 정책에서는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7.4%), 사회 공헌활동 지원정책에서는 '지역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발굴'(20.5%), 사회적·심리적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에서는 '취미 및 활동 공동체 형성 지원'(4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은숙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경기도 전체인구의 31.5%(428만 명)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와 욕구를 확인했다"며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해 '경기도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친환경차,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 간소화

공식 홈페이지서 신청 시스템 운영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5년 이내 중고차로 팔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가 간단해진다.

서울시는 무공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판매 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 사전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전기이

륜차·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등록 일로부터 5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소유주가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선 최소 3시간 내 판매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2 | 해짐 / 17:29

11월 6일 (월)
음력 : 9월 23일

수도권 날씨
16~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6/18, 동두천 15/17, 가평 16/16, 파주 15/16, 서울 16/17, 양평 16/17, 양주 16/17, 수원 16/17, 용인 16/17, 평택 16/19, 백령도 13/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여성은 집에서 애 낳고 돌보아야”... 시진핑의 저출산 대책
▲오바마 “이·팔 전쟁, 누구의 손도 깨끗하지 않다” 일침 /사진 뉴시스

▲중동 순방 블링컨, 이스라엘·아랍국가에 ‘일시적 휴전’ 퇴짜 맞아
▲호주 총리, 7년 만에 방중...“최대 무역국과 건설적 대화할 것”



▲한국은 공매도 금지한다는데... 필리핀, 27년만에 허용 /사진 뉴시스
▲인도, 8억 국민에 ‘곡물 무료 정책’ 5년 연장